감상의 시작

수능 문학 기본서

글 읽는 황쌤

『감상의 시작』 사용 설명서

1.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Ⅰ. 현대 문학**, **Ⅱ. 고전 문학**으로 되어 있다. 각각 [개념편]과 [문제편]으로 나뉜다. [개념편]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의 네 갈래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편]은 [개념편]에서 세운 틀을 수능 형식의 지문과 문제에 적용하는 곳이며, SET별로 진행된다. 각 SET 뒤에는 해설이 이어진다. 해설의 순서는 <보기> 독해, 작품 감상, 문항 해설이다. 문항 해설에서는 선택지마다 '적절' 또는 '부적절'의 판정과 그 근거를 감상에 기대어 설명한다.

2. 이 책의 특징

첫째, 과외를 받듯 읽을 수 있다.

선생님이 옆에 앉아 한 줄씩 짚어 주는 것처럼 적었다.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을 찾고, 일상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래서 혼자서도 끝까지 따라올 수 있다.

둘째, 모든 감상은 한 문장에서 출발한다.

> **인간(=화자, 등장인물)은 자기 내면세계대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한다.**

시든 소설이든, 현대 문학이든 고전 문학이든 이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작품이 바뀌어도 감상의 틀은 바뀌지 않는다.

셋째, 해설은 문제 풀이가 아니라 감상에 집중한다.

해설의 대부분은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쓰였다. 지문을 제대로 감상했다면, 선택지가 맞는지 틀린지는 그 감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지별 해설도 '적절/부적절'의 근거를 지문 감상에서 끌어와 보여 주는 데 집중한다.

넷째, 실전에서 떠올릴 수 있는 감상을 기본으로 한다.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작품을 만나도 문맥만으로 해낼 수 있는 수준을 기본으로 삼았다.

다섯째, [개념편]과 [문제편]이 이어져 있다.

해설 곳곳에서 [개념편]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불러낸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때마다 돌아가 확인하자. 그렇게 오가는 사이에 틀이 단단해진다.

여섯째, 수능 국어의 기본이 된다.

[개념편]에서 "시도 글이니, 일반 글 읽듯이 읽자"라고 했다. 문학을 제대로 읽는 힘은 결국 글을 제대로 읽는 힘이다. 이 책에서 기른 힘은 문학을 넘어 국어 전체의 바탕이 된다.

3. 이렇게 공부하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설이 아니라 네 고민이다. 지문을 읽고 나면 바로 해설을 펼치고 싶을 것이다. 참자. 먼저 스스로 감상해야 한다. 틀에 맞춰 네 힘으로 끝까지 읽어보자. 그다음 문제를 풀고, 해설을 펼쳐 내 감상과 비교하자. 내 감상이 해설과 다르다면, 어디서부터 갈렸는지 찾아보자. 대부분은 지문에 없는 내 주관을 넣었거나, 지문에 있는 근거를 놓친 경우다. 틀린 문제는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지 말자. 그 선택지가 왜 허용되지 않는지, 지문의 어느 부분 때문인지 먼저 스스로 설명해 보자. 그런 다음 해설의 판정과 근거를 읽으며 내 설명이 어디서 어긋났는지 확인하자. 그 과정을 직접 거쳐야 실력이 된다.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직접 찾아보자. 해설이 모든 단어를 풀어 주지는 않는다. 스스로 찾아본 단어가 오래 남는다.

4. 끝까지 가자

처음에는 감조차 안 올 수 있다. 당연하다. 틀을 배우는 것과 틀로 읽는 것은 다르고, 그 사이를 메우는 건 결국 직접 읽어본 경험이다. SET를 하나씩 넘길수록, 작품은 달라져도 읽는 방식은 같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이름은 『감상의 시작』이다. 문학 감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 장까지 가 보자. 그때 너는 처음 이 책을 펼쳤을 때와는 다르게 작품을 읽고 있을 것이다. 끝까지 함께 가자.

글 읽는 황쌤

목차

Ⅰ. 현대 문학

개념편

현대시 7

현대소설 13

문제편

SET 1 21

[현대소설] 채만식, <미스터 방>(2023.6.) · **[현대시]** (가) 신동엽, <향아> (나) 기형도, <전문가>(2023.6.)

SET 1 해설 27

SET 2 35

[현대소설]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2023.9.) · **[현대시]** (가) 윤동주, <병원> (나) 박목월, <나무>(2017.9.)

SET 2 해설 41

SET 3 49

[현대소설] 윤흥길, <날개 또는 수갑>(2025.9.) · **[현대시]** 윤동주, <자화상>(2011.11.)

SET 3 해설 53

SET 4 61

[현대소설] 최명희, <쓰러지는 빛>(2023.11.) · **[현대시]** 이용악, <그리움>(2021.12.)

SET 4 해설 65

SET 5 71

[현대소설] 윤흥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2022.11.) · **[현대시]** (가)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나)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2016.11.)

SET 5 해설 77

Ⅱ. 고전 문학

고전시가

개념편 87

문제편

SET 1 105
[고전시가] 권호문, <한거십팔곡>(2019.9.)

SET 1 해설 107

SET 2 111
[고전시가] 조위, <만분가>(2015.9.)

SET 2 해설 113

SET 3 117
[고전시가] 정극인, <상춘곡> / 이이, <고산구곡가>(2020.9.)

SET 3 해설 119

SET 4 123
[고전시가] 정훈, <탄궁가>(2016.9.)

SET 4 해설 125

SET 5 129
[고전시가] 작자 미상, <정석가> / 작자 미상, 사설시조(2015.9.)

SET 5 해설 131

고전소설

개념편 137

문제편

SET 1 141
[고전소설] 작자 미상, <홍계월전>(2016.6.)

SET 1 해설 143

SET 2 147
[고전소설] 김만중, <사씨남정기>(2018.11.)

SET 2 해설 149

SET 3 155
[고전소설] 조위한, <최척전>(2019.11.)

SET 3 해설 157

SET 4 161
[고전소설] 조위한, <최척전>(2017.6.)

SET 4 해설 163

SET 5 168
[고전소설] 작자 미상, <임장군전>(2019.11.)

SET 5 해설 170

Ⅰ

현대 문학

개념편

현대 시

1. 화자의 내면세계, 그리고 외부 세계

시에는 화자가 있다. 화자를 쉽게 말하면 '나'이고, 어렵게 말하면 '자아'라고도 한다. 나도 '자아'를 갖고 있고, 너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시의 내용은 화자의 이야기, 즉 '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자아'는 자신만의 정서, 주관, 입장 등을 가진다. 이때 자아의 내면에 있는 정서, 주관, 입장 등을 '내면세계'라고 한다. '내면세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부 세계'가 있다. 외부 세계는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적 요인이다. 내 시선에 포착되는 의자, 시계, 침대, 나무, 하늘, 그리고 너까지. 나에게 다 외부 세계다. 화자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자.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하늘을 보며 바람을 맞는 두 사람, 일영이, 광현이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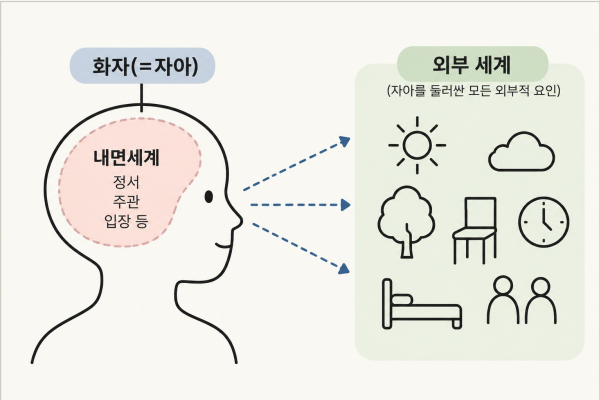
1) 일영이 : 첫사랑에 성공했다. 날아갈 것만 같다.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분다. 내 사랑을 축하해 주듯.

2) 광현이 : 그녀와 이별했다.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내 속도 모르고, 무심한 하늘은 티 없이 맑다. 이때, 시원한 바람이 분다. 내 피부를 스치며 위로한다. 어쩔 수 없다고.

같은 외부 세계를 바라보아도, 누가 바라보느냐, 즉 어떤 '자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식의 내용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일영과 광현이가 가진 내면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주변 환경(=외부 세계)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한 번 떠올려 보자. 숙면을 취한 후 아침을 맞이해 상쾌하다. 새소리가 창문을 넘어 들린다. 짹짹 지저귀는 **새소리가 기분 좋게 들린다.** 반면, 어제 악몽을 꿔서 잠을 설쳤다. 알람 소리를 듣고 힘겹게 일어났더니 머리가 띵 아프다. 이때 새소리가 들린다. **성가시다. 짜증 난다. 소음공해가 따로 없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주관대로 외부 세계를 바라본다. 다시 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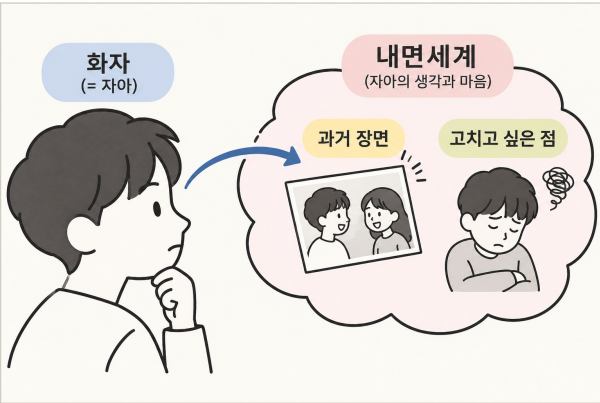
인간(=자아)은 자기 내면세계대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화자도 **자기 내면세계대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를 글로 적으면 시가 된다.



2. 인간은 성찰하는 존재다.

인간은 주변 상황, 즉 외부 세계도 바라보지만, 자신의 내면세계를 스스로 바라보기도 한다. 여기서 인간이 **스스로 내면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성찰'이라고 한다. 성찰해 보니, 내 내면에 **고쳐야 할 점을 발견**했다. 이를 '**반성**'이라 한다. 또는 내 내면 중 **과거의 장면**을 떠올렸다. 이를 '**회상**'이라고 한다.



3. 기형도의 <엄마 걱정> 감상하기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 기형도, <엄마 걱정>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위 시를 감상해 보자. 현대 시 감상의 틀은 다음과 같다.

현대 시 감상의 틀

① 시도 글이니, 일반 글 읽듯이 읽자. 자신의 주관을 넣지 말고 내용을 파악한다는 느낌으로 읽는다.

② 읽으면서, 화자가 무엇(=내면세계 or 외부 세계)을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한다.

③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여기서 화자의 내면세계를 파악한다.

④ 파악한 내면세계의 근거(=왜 그렇게 바라보는지)를 찾고 이에 공감하며, 그 내면세계대로 시를 감상한다.

무슨 말인지 감조차 안 올 거라 본다. 당연한 반응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함께 감상하자.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 화자는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며, 해 진 하늘을 '해가 시'들었다고 인식한다. 시들었다는 건, 생명력을 소멸했다는 의미다. 즉, 화자는 엄마를 기다리는 이 시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화자가 '결핍'이라는 내면세계를 가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문학 공부에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한다. 이 키워드를 잘 사용해야 문학 감상에 수월하다. 정리하고 가자.

1) **지향(=이상)** : '지향'은 **화자가 바라고, 소망**하는 무엇이다. <엄마 걱정>의 화자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으니, 엄마와의 재회가 화자의 지향이자 소망**이다. 시에서 화자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면, 당연히 지향하는 대상이 '결핍'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2) **결핍(=이상과 현실의 괴리)** : 앞서 설명한 대로, '결핍'은 **지향하는 대상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를 화자가 바라는 '이상'과 화자가 처한 '현실'이 '괴리'(어그러져 동떨어져 있음)되어 있다고도 한다. <엄마 걱정>에서 화자가 바라는 건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결핍'을 느끼고 있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지향과 결핍. 두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자. 자, 이제 '결핍'이라는 내면세계대로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된다.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 화자 '나'는 '찬밥처럼' '혼자' 집에서 '숙제'하고 있다. '숙제'하고 있다니, 화자는 어린가 보다. 그리고 자신을 마치 밥그릇에 식어버린 찬밥처럼 인식한다. 왜? 결핍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없어서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딴짓할 수 있음에 기뻐했다면,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어린 화자에게는 엄마 없이 홀로 집에 있는 현실은 '어둡고 무'섭다.(여기서 '나는 혼자 집에 있는 게 개꿀인데^^'라는 네 주관을 넣으면 안 된다. 네 주관대로 읽으면 안 되고, 화자의 내면세계대로 읽어야 한다.) 이러한 내면세계를 가진 화자가 '금 간 창틈으로' 넘어오는 '빗소리'는 어떻게 들릴까? 쓸쓸하게 들리지 않을까? 화자가 '빗소리가 쓸쓸하게 들린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쓸쓸하게 들렸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자아)은 자기 내면세계대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 화자의 내면세계에 충분히 공감도 가능하다. 우리도 어린 시절이 다 있었고, 이제 혼자가 됐다고 느꼈을 때 어떤 마음인지도 잘 알기 때문이다.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 기형도, <엄마 걱정>

▷ 어린 화자는 '빈방에 혼자 엎드려' 눈물을 훔친다. 그런데 훌쩍거리'던'이라고 말하고 있다. '-던'은 과거를 회상할 때 쓰는 어미다. '내가 먹는 새우깡'과 '내가 먹던 새우깡'을 비교해 보자. 전자는 내가 현재 먹고 있는 과자를 말한다면, 후자는 과거에 먹은 적 있는 과자를 말한다. 또한 1연의 '훌쩍거리던'이 2연의 '아주 먼 옛날'을 꾸며준다. 따라서 1연은 성인이 된 화자가 쓸쓸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한 내용이다. (회상은 성찰의 일부라고 했다. 즉 1연은 성찰한 내용이기도 하다.)

2연에서 화자는 어린 시절 자신을 떠올린다. 화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 즉 성찰한다. 떠올리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눈시울은 언제 뜨거워지는가? 눈물이 나오려고 할 때다. 성년이 된 화자는 불우했던 '유년'의 '나'를 떠올리니 슬퍼 눈물이 난다.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성인 화자는 유년의 자신을 연민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년을 '윗목'에 비유하며 작품을 마무리한다.

그런데 왜 자신의 유년 시절을 윗목에 비유했을까? 사실 '윗목'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다면, 정말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 윗목이란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 불길이 잘 닿지 않아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다. 그렇다면, 유년을 윗목에 비유한 의미를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지 않은가?

4. 심상(=이미지)과 비유, 그리고 반복

현대 시 공부하면서 심상, 비유, 반복은 안 들어봤을 리가 없다. 그만큼 이 세 가지는 시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왜 중요한지 물어보면, 답하기가 곤란하다. 이제 우리는 답해보고자 한다. 이 답으로 현대 시 감상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다. <엄마 걱정>을 활용하여 알아보자.

1) 심상(=이미지)

심상(心象)은 단어 뜻 그대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그림)'이다. 시를 읽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모양이나 느낌을 말한다. 눈으로 보는 듯한 시각, 귀로 듣는 듯한 청각, 피부로 느끼는 듯한 촉각이 대표적이다. <엄마 걱정>에 담긴 심상을 살펴보자.

- 시각적 심상: '해는 시든 지 오래',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을 읽으면 어둡고 낡은 방 안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다.
- 청각적 심상: '발소리 타박타박', '고요히 빗소리', '훌쩍거리던'을 읽으면 적막한 방을 채우는 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 촉각적 심상: '찬밥',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을 읽으면 차갑고 뜨거운 온도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다.

화자는 왜 다양한 심상을 사용할까? **화자의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를 독자가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앞서 우리는 화자가 자기 내면세계대로 외부 세계를 인식한다고 배웠다. 화자는 엄마의 부재로 인해 깊은 '결핍'과 두려움을 겪는 중이다. 화자가 바라본 외부 세계에는 이 쓸쓸한 내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화자는 "나는 지금 몹시 외롭고 슬프다."라고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온기 잃은 '찬밥'(촉각)이 되어, '어둡고 금 간 창틈'(시각)으로 스며드는 '고요한 빗소리'(청각)를 듣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독자는 시각, 청각, 촉각의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하나의 풍경으로 조립한다. 글자를 읽었을 뿐인데, 춥고 어두운 방에 홀로 웅크린 아이의 두려움과 시린 마음이 내 것처럼 깊게 다가온다. 정리하자면, **심상은 화자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다. 화자는 이 렌즈를 통해 **화자의 추상적인 내면세계(결핍, 쓸쓸함)를 구체적인 감각으로 표현(=구체화)**한다.

2) 비유

심상으로 화자의 내면세계를 감각적으로 그렸다면, 비유는 그 내면세계를 더 선명하게 독자에게 꽂히게 만든다. 비유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때 내가 진짜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원관념'이라 하고, 빗대기 위해 끌어온 낯선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한다. 빗대어 표현하려면 두 대상 사이에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엄마 걱정>에 쓰인 비유를 통해 원리를 확인해 보자.

-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원관념은 '나'(어린 화자)다. 보조관념은 '찬밥'이다. 방에 홀로 남겨진 화자의 처지를 다 식어버린 밥에 빗댔다. 둘의 공통점은 온기가 없고 버려진 듯 쓸쓸하다는 것이다.
- 배춧잎 같은 발소리 : 원관념은 '엄마의 발소리'고, 보조관념은 '배춧잎'이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엄마의 지친 발소리를 물기 없이 시들고 축 처진 배춧잎에 빗대어 표현했다.
- 내 유년의 윗목 : 원관념은 '유년 시절'이고, 보조관념은 '윗목'이다. 앞서 윗목이 방에서 불길이 닿지 않는 가장 차가운 곳이라고 했다. 사랑과 온기가 부족했던 차갑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윗목이라는 공간에 빗대었다.

시를 배울 때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 비유의 종류를 나눈다. '~처럼, ~같이'가 붙으면 직유법, 'A는 B다' 형태면 은유법이라는 식이다. 이를 구분하는 명칭도 중요하지만, 시를 감상할 때 핵심은 종류를 칼같이 나누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건, 작가가 '**비유적 표현을 썼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채고, '**왜 하필 저 보조관념을 끌어와서 표현했을까**?' 질문하며 그 숨은 의미와 공통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렇다면 화자는 왜 굳이 비유를 쓸까? 결국 **화자의 '내면세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다. "나는 엄마가 없어서 혼자 빈 방에 있으니 너무 외롭고 서글퍼."라고 밋밋하게 말하는 것보다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었어."라고 비유할 때, 화자의 시리고 비참한 마음이 독자에게 훨씬 강렬하게 와닿는다. 결국 비유 역시 심상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시선 속에 담긴 자신의 내면세계(결핍, 외로움, 슬픔 등)를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다.

3) 반복

시는 일반적인 글과 달리 리듬감을 가진다. 이 리듬감을 '운율'이라고 한다. 시에서 **운율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복'**이다. 같거나 비슷한 단어와 문장을 반복해서 소리 내어 읽어보자. 자연스럽게 박자와 리듬이 생긴다. 반복은 글에 운율을 형성하여 시를 시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여기에 더해, **시어(단어)나 시구(구절)의 반복은 화자의 내면세계를 강렬하게 '강조'**한다. <엄마 걱정>을 다시 보자. 화자는 "안 오시네"라는 시구를 반복한다. 해가 시들도록 엄마를 기다리는 초조함, 어두운 빈방에서 혼자 느끼는 두려움과 결핍이라는 화자의 내면세

계가 이 반복을 통해 독자에게 훨씬 깊게 다가온다. 일상에서도 정말 무서울 때 "무서워, 무섭다고!"라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는가. 한 번 말할 때보다 여러 번 말할 때 그 감정이 훨씬 간절하게 전달된다. 결국 시에서 반복은 운율을 낳아 시적인 리듬을 만들고, 동시에 화자의 내면세계를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장치다.

5. 현대 시 감상의 범위와 <보기> 활용

처음 보는 낯선 시를 만났을 때, 학교 내신 시험처럼 시어나 구절의 함축적 의미를 단번에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내신 시험은 수업 시간에 이미 배운 숨은 의미를 암기하여 치른다. 하지만 낯선 작품은 철저히 시 자체의 문맥에 기대어 읽어야 한다. 따라서 낯선 시 감상의 범위는 **시 내부의 정보만 활용하는 '내재적 관점'으로 한정**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감상 틀을 다시 떠올려 보자. 내 주관을 빼고 일반 글 읽듯 내용을 파악한다. 화자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지 살핀다. 이 문맥을 바탕으로 화자의 내면세계를 찾아내는 데 힘을 쏟는다. 낯선 시어의 깊은 상징을 억지로 짐작할 필요가 없다. 시에 적힌 문맥 속에서 화자의 상황과 내면세계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현대 시 문제에는 작품 밖의 배경지식을 설명하는 <보기>가 등장한다. 시 자체만 읽는 내재적 관점을 넘어, 작가의 삶이나 시대 현실 등 새로운 감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보기>의 내용을 시에 적용하여 감상해 보라고 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육사의 <청포도>로 배워보자.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이육사, <청포도>

▷ 먼저 내재적 관점, 즉 시 자체의 문맥만으로 화자의 내면세계를 파악해 보자. 화자는 칠월의 고향 마을에서 익어가는 청포도를 보며 누군가를 기다린다. 화자가 바라는 대상은 '고달픈 몸'으로 찾아오는 '손님'이다. 화자에게 손님은 아직 오지 않은 결핍의 대상이자, 간절히 바라는 지향점이다. 화자는 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을 다한다. 손님과 청포도를 함께 먹을 수 있다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다고 말한다. '은쟁반'과 '모시 수건'을 마련하며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도 한다. 맑고 깨끗한 심상들을 통해 손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순수하고 정성스러운 내면세계를 읽어낼 수 있다. 이 시의 화자는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준비를 마쳤다. 이 정도의 감상은 문맥 파악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자, <보기>를 보자

<보기>

1939년 8월, 이육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청포도>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육사의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원촌 마을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 이육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비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같은 교육으로 형성되는 선비 정신 속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개인의 편안함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바른 도리라는 생각도 들어 있다. 이런 공간에서 나서 자란 이육사는 자연스럽게 나라를 찾고자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로 나아갔다.

▷ <보기>를 적용하면, 화자가 애타게 기다리는 '손님'은 단순한 방문객을 넘어선다. 잃어버린 조국의 '광복'이나 조국을 위해 싸우는 '지사'로 구체화된다.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온다는 구절은 일제 강점기라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 겪는 고난을 뜻한다. 화자가 두 손을 적셔도 좋다고 한 부분은 선비 정신과 연결된다. 조국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안위나 희생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다. 은쟁반과 모시 수건은 조국을 기다리는 독립운동가의 순결하고 지조 있는 마음가짐을 드러낸다. 내재적 관점으로 단단하게 파악한 화자의 기다림에 <보기>의 시대적 배경을 결합하니, 조국 광복을 향한 숭고한 염원을 노래한 시로 감상의 폭이 넓어진다.<보기>와 작품의 관계를 이해했는가? 지금 이 관계성만 파악했다면, 족하다. 문제 풀이는 **[문제편]**에서 함께 해보면 된다. 시험에서 <보기>로 어떤 배경지식이 주어질지는 미리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앞서 배운 감상 틀을 바탕으로 시를 내재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탄탄하다면, 그 어떤 낯선 <보기>가 나오더라도 이를 작품에 적용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 뼈대가 튼튼해야 살을 제대로 붙일 수 있는 법이다. 외부 정보에 먼저 기대려 하지 말고, 시 자체의 문맥 속에서 화자의 내면세계를 정확히 파악해 내는 내재적 감상 능력을 최우선으로 단단하게 다져 두자.

문제편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최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낼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 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얘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 주는군.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 <보기>에서 작품의 내면세계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문학 문제는 <u><보기>를 먼저 읽고,</u> 작품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6.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가) 신동엽, <향아>, (나) 기형도, <전문가>〕

1. <보기> 독해

<보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가), (나) 화자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다. 즉, 두 작품의 화자는 지금 처한 현실에서 '결핍'을 느낀다.(=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렇다면, 무언가를 지향한다는 말인데, (가)의 화자는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둔 '생명력과 순수성'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것이 '결핍'된 현실은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해당한다. (나)의 화자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로 인해 '대중'이 '획일적'으로 '길들'어지는 현실을 '부정적 현실'로 인식하고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2. 작품 감상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최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낼랑 그만 내자

▷ 화자는 '향'에게 "~로 가자"라고 청유한다. 시에서 청유형은 화자가 권유하는 그 행동이 곧 화자의 지향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지향점은 '오래지 않은 옛날'이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결핍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가자'는 '돌아가자, 찾아 가자꾸나'로, 지향점에 해당하는 '오래지 않은 옛날'은 '전설같은 풍속, 정자나무 풍속,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변주 및 반복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곳과 반대되는 시어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허울의 눈부심,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 발돋움의 흉내' 등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다. 왜냐하면, 이들에 '넋을 뺏기지 말고', '베기지' 말자고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계속해서 지향점에 해당하는 시어와 청유가 반복 및 변주하여 제시되고 있다.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얘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 화자는 '그'를 바라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찾으면서 읽어야 한다. '그의 집 담장'은 '유리'로 되어 있다. 담장이 유리로 되어 있다니 이상하긴 하다.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이 '실수'로 '유리 담장'을 '박살'낸다. 아이들이니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 집 담장이 유리인 점을 제외하면, '그'가 이상해 보이진 않는다.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 '그'의 관대한 반응에, 처음엔 '이상한 표정'을 지었던 아이들은 곧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워한다. 그러던 중,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아이가 등장한다. 합리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주장하는 아이'는 '골목에서 즉시 추방'된다. 왜일까?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 아무튼 '그'의 '유리 담장'은 '매일'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흐른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되었다. 여기서 뉘앙스가 이상함을 느껴야 한다. 앞의 '추방'과 함께 '부하'라는 말의 어감이 긍정적이지 않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걷어낸다. 그러니 밝았던 '그 골목'은 사실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이었다. 즉, '그'가 '아이들'을 속였던 것. 나아가 '그'의 '부하'가 된 '아이들'은 '일렬로' 서서 '묵묵히 벽돌'을 나른다.

이처럼 '그'는 '유리 담장'으로 아이들을 속이고, '견고한 송판'을 쌓자는 아이를 '추방'하는 기만적인 인물이다. 이것이 화자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 이유이고, 이 '이상함'에는 '그'에 대한 화자의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3. 문항 해설

5	6	7
①	④	②

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기>의 논리부터 정리하자.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든 현실 속에서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둔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 즉 (가)의 화자에게 그 순수성은 지금 결핍되어 있는, 되찾아야 할 대상이다. (나)는 '환영'으로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통치술을 비판한다.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 **부적절. '미개지'는 화자의 지향, 즉 <보기>가 말한 '생명력과 순수성'이다. 그런데 선지는 화자가 이 '미개지'를 '확장'하려 한다고 말한다. '확장'이라는 말은 지금 '미개지'가 좁게나마 이미 있고, 그 범위를 넓힌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작품 감상에서 확인했듯, 또 <보기>에 따라서도,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성은 지금 결핍된 상태다. 있는 걸 넓히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되찾아 오려는 것이므로, '확장'이 아니라 '회복'이라 해야 맞다.**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 주는군.

▷ **적절.** '그'가 유리 담장을 걷어내고 나서야 그 골목이 실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이었음이 드러난다. 담장이 있는 동안엔 오히려 밝고 좋은 곳처럼 보였다는 뜻이니, 이는 <보기>가 말한 '환영(幻影)' 그 자체다.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적절.**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이며, <보기>의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가 이것이다. (나)에서 다른 의견(송판으로 담을 쌓자)을 낸 아이가 '즉시 추방'되는 것은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보기>의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통치술과 통한다.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적절.** '발돋움의 흉내' 역시 화자가 경계하는 시어다(자기 본모습이 아닌 걸 억지로 따라 하는 모습이니 '허위'와 통한다). (나)에서 유리 담장이 깨지는 소동에도 아이들이 '곧' 즐거워하는 것은 별다른 저항 없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서서히 길들여지는 과정이다.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 **적절.**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보기>가 말한 '생명력과 순수성'이 살아 있는 공동체 그대로다. 반대로 자유롭게 놀던 아이들이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마지막 장면은, 개성을 잃고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대중의 형상이다.

6.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 **부적절.** ㉠은 화자가 "돌아가자"고 거듭 권유하는, 귀환을 지향하는 공간이다. '금지'와는 정반대다.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부적절.** ㉠에서 화자가 하는 일은 반성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귀환의 지향이다. '자기반성'은 본문에 없는 내용이다.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부적절.** ㉡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을 '낯선' 공간이라 한 게 문제다. ㉠은 화자가 예전에 실제로 겪었던 익숙한 고향("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최이던")이지, 낯선 곳이 아니다.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적절. ㉠에는 "두레를 먹던"(두레: 농민들이 함께 모여 일하던 공동 노동 조직)이라는 공동체적 노동의 흔적과 순박한 삶이 함께 있다. ㉡은 처음엔 "마음껏 놀렴"이라던 놀이의 공간이었지만, 나중엔 아이들이 '그'의 부하가 되어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노동만 남은 공간으로 바뀐다.**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 **부적절.** '상생'은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사는 관계다. 그러나 ㉡에서 '그'는 아이들을 유리 담장이라는 환영으로 속이고 끝내 부하로 부려 먹는다.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

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부적절.** '관망'은 한 발짝 물러나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태도다(모르면 익혀 두자: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이러쿵저러쿵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함). 그러나 (가)의 화자는 "가자", "돌아가자"처럼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관망이라는 소극적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 선지는 답이 아니다.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적절. '유리 담장'이라는 상징적 소재가 세워지고 → 아이들이 깨고 → 다시 세워지고 → 걷어내자 진실이 드러나는 일련의 사건 전개 자체가, 직접 말하지 않고도 <보기>의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이라는 주제를 암시한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부적절.** 음성 상징어(의성어·의태어)는 두 작품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고,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다루는 내용도 아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부적절.** (가)는 "돌아가자" 등의 반복·변주가 맞지만, (나)에는 이런 기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산문처럼 사건이 순서대로 진행될 뿐이다. '모두'라는 조건 때문에 틀렸다.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 **부적절.** (가)의 화자는 위로가 아니라 청유(~하자)의 어조로 '향'에게 말을 건넨다. (나)는 애초에 특정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 아니라, '그'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관찰자처럼 전달하는 서술이다.